

전기의 날 유래와 최초의 민간점등

정리/대한전기기사협회 홍보과

4월 10일은 전기의 날.

지금으로부터 95년 전인 1898년 1월 26일 고종이 민간인의 이름으로 한성오서구내의 전차, 전기등, 전화통의 가설과 운영권을 인가받아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한 데서 비롯되었다.

이 한성전기회사는 1898년 12월에 서대문에서 홍릉간의 전차궤도부설과 전선로의 가설공사를 완공하고 다음 해인 5월 20일 수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차의 운행을 개시하였다.

이어서 1904년 4월 9일부터는 전차의 야간운행이 밤 10시까지 연장운영됨에 따라 전차정거장 주위를 밝히기 위하여 4월 10일부터 종로에 3개의 가로등을 점등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.

이것이 우리나라 민간전등(경복궁 내 건청궁에는 1887년 3월에 점등, 이때 설비용량 3kW의 증기발전기 2대와 100축광짜리 아크등 2등을 설치)점화의 시초인 동시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지 21년만의 일이다.

1965년 3월 26일 대한전기협회가 발족되면서 범전기인의 뜻에 따라 이 뜻깊은 민간시동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4월 10일을 「전기의 날」로 정하고 1966년부터 해마다 기념식을 거행하여 왔다.

특히, 대한전기협회는 1970년 4월 10일에는 전기의 날 기념행사를 미국 에디슨재단과 공동주관하여 각국의 전기계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함으로써 국위선양과 국제간의 유대강화에도 크게 공헌하였다.

1970년 12월 5일 정부에서는 「전기의 날」을 상공부령으로 제정, 공포하여 범국가적인 행사로 전개



▲ 건청궁의 최초 전기점등도

하여 오던 중 1973년 「상공의 날」로 흡수·통합됨으로써 중단이 되었다.

그동안 우리나라의 전기사업은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힘입어 전기공업 및 발전설비가 늘어났다. 우리나라 전기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계기로 대한전기협회는 기념행사를 부활키로 하고 지난 1983년부터 매년 대회를 개최하여 오던 중 1985년 12월 정부시책에 의거 1987년부터 격년제로 전기산업진흥축진대회를 개최하여 전기계 발전에 공이 큰 유공자에게 산업훈·포장 및 표창 등 정부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행사를 가짐으로써 전기인의 사기 진작과 전기산업진흥을 촉진하여 왔다.

따라서 「전기의 날」은 지난날의 전통을 이어 모든 전기인의 굳은 결속과 전기산업의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날이다.